

목장모임, 주일학교

프리토리아	김장원 문현진	유창환 함은정 손은미
베를린	조혜정 김영관	정영 박애희 정경화
키르기스	이중혁 양새롬	정광 이윤경 전민교 양경모 안제호 김지인 이정후 정다운
퍼스	권영준 유나윤	다윗부
땅 끝까지	김현수 강아란	윤혜윤 박용수 문선희 조현선
발리	양순모 서은비	김은재 장해청 신상민
나짱	권오윤 김인지	김석원 이수민 김동규 김희진
우름치		양승구 김혜량 이옥희
주일학교	다윗	박소울 김지아 주송현 신지호 김재인 주송하
	믿음	김서울 박지웅 김성준 김수겸 김태인 신유나 박지훈 정시우 정시연 박도겸 김서아 유지안 박지민 김수호 유니아
	소망	양희건 유시우 김은호 김해인 정이진 양하은 이강 김민호 김리아 이지윤

교회 주소

우)13503, 별말로 40번길 3 성산빌딩 4층
(옛주소 : 야탑3동 272-4 성산빌딩 4층)

교회 관련 링크



노선 공개페이지



네이버 카페



오시는 길
(네이버지도)

모임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2부	오전 11시	올리브땅
	소망부	오전 11시	본당
	믿음부	오전 11시	본당
	다윗부	오전 11시	본당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승관
사역위원 김장원 권영준
대표전화 / 070 - 4409 - 8291

협력 선교사/교회/단체

지역	협력 선교사/교회
프리토리아	김보근 선교사
베를린	박희명 선교사
키르기스	K 선교사
퍼스	변성모 목사
땅 끝까지	이강욱 선교사
나짱	K 선교사
발리	최문식 선교사
우름치	L 선교사

헌금안내

신한은행 100-025-549240
예금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담교회

주일예배순서

- ★ 일어설 수 있는 분은 같이 일어서주세요 인도 : 김승관 목사
- 찬양 찬양팀
- 환영과 광고
- ★ 입례찬송 다같이 성도여 다 함께
- ★ 사도신경 다같이
- 봉헌찬송 다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통364)
- 공기도 1부: 권영준 집사, 2부: 조혜정 집사
- 성경봉독 인도자 로마서 1장 8-15절
- 말씀선포 김승관 목사 카리스마
- ★ 찬양과 헌신 다같이 축복의 사람
- 강복선언 설교자

목장예배순서

- 애찬 다같이
- 올리브블레싱 다같이
- 찬양 인도 / 찬양부장
- 광고 목사 (지난 주보 목회칼럼을 읽어 주세요)
- 성경공부 인도 / 목장교사
- 나눔 다같이 (감사 나눔을 먼저 하세요)
- 중보기도 인도 / 목자
- 선교와 전도 인도 / 목자 (선교사님과 VIP 를 위해 기도하세요)

2026년 03월 08일
/제 19권 10호

영원을 향해가는 유목민

예담교회
SINCE 2008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설교요약

/결단과 헌신

일정안내

수요기도모임

03.11 양순모
03.18 권영준

예배당 청소

03.15 프리토리아·퍼스
03.22 땅 끝까지·키르기스

식사 준비

03.15 프리토리아·퍼스
03.22 땅 끝까지·키르기스

예배기도

03.15 권오윤 김장원
03.22 김인지 양순모

주요 교회행사

지난 주 현황

현금

실입조	2,715,000	작정현금	400,000
주일현금	240,000	기타현금	130,000
주일학교/다윗부현금	57,000	선교현금	100,000
감사현금	210,000	건축현금	60,000
목적현금	-	성찬현금	180,000

감사의 제목

- 12년동안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행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 새로운 삶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장별 VIP 명단

목장	VIP 명단
프리토리아	유현철 김현아 김지혜 문기식 송가희
베를린	김수진 이혜림 이혜주
키르기스	박주혁 한준호 박수진 김완영 최재광 강성은 김성호 황정준
퍼스	이승주 정보민 김성원 김장운 신은영 최민영
땅 끝까지	배민경 장현정 김용현 김범수 이경주
나짱	이진아 이세라 민지은 김소혜 진서울
발리	이산아 우경민 심현섭 센센쓰루잉

교회소식

- 오늘 점심 식사 후 유아실에서 총목자모임 있습니다.
- 다음 주일(15일)예배 설교는 이세령목사님(복음자리 교회)께서 섬겨 주십니다.

목회칼럼

말씀의 은혜 위에 기도의 불을

신앙생활의 두 축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와 같습니다. 배를 저을 때 양손의 노가 균형을 맞추어 움직여야 배가 곧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쪽 노만 계속 젓게 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빙빙 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자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월 1일부터 시작한 90일 성경통독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경 전체를 읽어가며 하나님 말씀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커지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로서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보입니다. 통독에 열심을 내다보니 상대적으로 기도 생활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개인 기도만큼이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개인 기도와는 또 다른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안타깝게도 요즘 수요기도회에는 참여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목자나 목녀이고, 목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에 공동체가 충분히 모이지 못하는 모습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수요기도회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도회 인도자가 자기 목자이거나 목장 식구일 때는 목장 식구들이 함께 수요기도회에 참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은 목장의 영적 결속을 더욱 깊게 만들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짚어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만 많아도 안 되고, 기도만 많아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교회와 성도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90일 성경통독으로 시작된 말씀의 은혜가 이제 기도의 불꽃과 함께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 위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자라 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29

성도여 다 함께

(통 29)

찬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계 19:4)

MADRID: 6.6.6.6.D.
Traditional Spanish Melody
Arr. by B. Carr, 1824
Harm. by D. Evans, 1927

C. H. Bateman, 1843

보통으로

1.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 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3.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인도자 : I.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도자 : II.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도자 : III.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통일 364)

S. F. Adams, 1841
 보통으로
 Nearer, my God, to Thee
 땅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왕 28:12)
 시련과 극복
 BETHANY: 6.4.6.4.6.6.6.4.
 L. Mason, 1856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들생들
 자베명단
 가개길을
 짐베되쌍
 같고나은
 은잠니것
 고같은본
 생습해반
 이니로아
 다다서

내꿈천숨
 일에서질
 생도날때
 소소부되
 원원르도
 은이니룩
 늘늘늘늘
 찬찬찬찬
 송송송송
 하하하하
 면면면면
 서서서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 = 70
 작사/곡 설경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 하 - 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가 밭는 땅 어디에서라도 - 주님의 이름 높아 질 거예요

<http://cafe.daum.net/jlovesm>